

기억의 날, 1 월 18 일의 중요성

오늘, 마두반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만나려고 마두반에 왔다.

1. 오늘, 암릿 벨라부터 사랑을 가진 자녀들의 사랑 노래, 만남을 축하하는 대등한 자녀들의 노래, 접촉하고 있는 자녀들의 열성과 열의로 가득한 소리, 굴레에 갇힌 자녀들의 사랑 가득한 귀여운 불평과 많은 자녀들의 사랑의 꽃이 밥다다에게 도달했다. 이 나라와 외국에 있는 자녀들의 강력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고귀한 약속들 모두가 밥다다 아주 가까이에 도달했다. 밥다다는 자녀들 모두의 사랑하는 생각과 강력한 생각에 응답하고 있다, 항상 밥다다를 사랑할 지어다! 항상 강력하고 대등할 지어다! 열성과 열의로 항상 가까이 있을 지어다! 사랑의 불로 해방된 영혼이 되어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지어다! 자녀들이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가 이제 거의 여기에 당도했다. 자녀들의 진심에서 우러난 사랑의 소리는 콤바카르나 영혼들을 반드시 깨울 것이다. 굴레를 만드는 바로 그 영혼들이 신의 사랑의 끈에 묶일 것이다. 밥다다는 굴레에 놓여있는 딸들의 마음에 상서로운 그들의 날들이 오고 있다는 특별한 확신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2. 이 특별한 날, 사랑의 특별한 진주들이 밥다다에게 도달했다. 이 사랑의 진주들은 너희를 고귀한 다이아몬드로 만든다.

3. 오늘은 힘의 날이다.

4. 오늘은 대등한 자녀들이 “너희에게도 똑같은 것이 해당된다!” (탓 트왐)이라는 축복을 받는 날이다.

5. 오늘 밥다다는 샅티 군대에게 모든 힘을 유언한다. 그는 너희들에게 의지의 힘을 준다. 그는 너희에게 유언의 힘을 준다.

6. 오늘은 그가 아버지의 중추가 되어 자녀들을 세계라는 현장의 앞에 세운 날이다. 아버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자녀들은 잘 알려져 있다.

7. 오늘은 아버지 브라마가 카르마티트가 된 날이다.

8. 오늘은 너희가 마음으로 세계 유익을 위한 과업과 빠른 속도로 세계를 순회 여행하는 날이다.

9. 오늘은 자녀들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밥다다가 세상에 드러나는 날이다.

10. 오늘은 세계의 아버지를 세상의 자녀들에게 소개하는 날이다.

11. 오늘은 너희의 단계를 지식의 탑, 힘의 탑, 즉 탑처럼 흔들림 없고 부동하게 만들도록, 자녀들 모두를 고취하는 날이다. 각 자녀는 아버지의 기념비처럼 평화의 탑이다. 이제껏 만들어진 것은 물리적인 평화의 탑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버지를 기억하며 머무는 자녀인 너희들 모두 살아있는 형태의 기억의 탑이다. 밥다다는 살아있는 탑인 너희 자녀들 모두의 주위를 빙빙 돌고 있다. 오늘 너희가 평화의 탑 앞에 가서 서듯이 밥다다도 기억하며 머무는 탑인 너희들 모두의

앞에 서 있다.

12. 오늘 너희는 특별히 아버지의 방에 간다. 자녀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방에서 밥다다도 역시 그들 마음 속의 것들에 대해 얘기한다.

13. 너희들은 또 바바의 오두막에도 간다. 오두막은 사랑하는 자들과 사랑받는 이의 기념물이다. 사랑받는 아버지는 특히 사랑하는 자인 자녀들과의 만남을 축하한다. 그러므로 밥다다는 또 사랑하는 자인 자녀들의 갖가지 다양한 음악을 계속해서 듣는다. 일부는 사랑 (스네)의 리듬으로 음악을 연주하고, 어떤 이들은 힘의 리듬으로, 다른 일부는 희열로, 다른 이들은 사랑 (프렘)으로... 연주하고 있다. 밥다다는 이런저런 리듬의 음악을 계속 듣는다. 밥다다는 또 너희들 모두와 더불어 순회 여행을 계속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오늘의 특별한 중요성을 이해했느냐?

14. 오늘은 단지 기억의 날만은 아니고, 기억의 날이면서 그것을 통해 힘의 날이기도 하다.

15. 오늘은 결별의 날이나 무관심의 날이 아니고, 봉사에 대한 책임을 맡는, 즉위식의 날이다.

16. 오늘은 힘에 대한 인식의 틈락을 받는 날이다.

17. 오늘은 “자녀들이 앞에 있고 아버지는 뒤에 있다”는 생각이 실현되는 날이다.

18. 오늘 아버지의 생각과 그들을 불러내는 그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발현된, 사랑을 가진 2중의 외국인 자녀들을 보고 너희가 어떻게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도달했는지를 보며 아버지 브라마는 특히 행복하다. 너희들은 아버지 브라마가 불러낸 실질적인 결실이다. 모든 힘의 달콤함 (즈)으로 가득한, 그렇게 고결한 열매들을 보면서 아버지 브라마는 특별히 자녀인 너희들을 축하하며 축복해주고 있다. 느긋하고 익숙한 태도로 변함없이 발전을 계속해라. 자녀들이 매 발걸음마다 “그것은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입니다”라고 노래 부르듯이 밥다다도 역시 “그것은 자녀들의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한다. 너희는 머나먼 나라의 주민들이고 종교들이 동떨어져 있는데도 너희는 참으로 가까이 왔다. 아부에서 가까운 데 살고 있는 자들은 멀어졌다. 대양의 해변에 살고 있는 자들은 목마른 상태로 머무는 반면, 2중의 외국인 자녀들은 남들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 지식의 갠지스 강이 되었다. 그것은 자녀인 너희들의 놀라운 기적이다. 그러므로 밥다다는 행복이라는 행운을 가진 자녀들에 대해 항상 기쁘다. 너희들 모두 2중으로 행복하지 않느냐? 앗차.

아버지와 한결같이 대등해지고자 하는 고귀한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모든 힘에 대한 유언으로 의지력을 유지하는 자들에게, 사랑받는 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갖가지 다양한 곡조를 연주하는 자들에게, 변함없이 tap처럼 흔들림 없고 부동한 상태로 머무는 자들에게, 느긋하고 익숙한 태도로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모든 것이 자라도록 만드는 자들에게, 행복한 만남을 끊임없이 축하하는 자들에게, 이 나라와 외국에서 온 다양한 자녀들에게 꽃 세례를 퍼부으면서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오늘 사랑을 가진, 특별하며 봉사할 줄 아는 자녀들은 모두 서틀 리전으로 불러졌다. 자가담바와 디디도 역시 불러졌다. 비슈와 키쇼르, 그리고 봉사 길에 나섰던 각별히 사랑받는 자녀들도 모두 특히 기억의 날을 축하하려고 서틀 리전에 불러졌다. 이중의 봉사 도구인, 각별히 사랑받는 자녀들 모두 합류시대에 신과 함께 봉사하는 동반자들이며, 너희가 미래의 왕국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봉사에서도 역시 동반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2중의 봉사자들 아니냐? 그렇게 이중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녀들은 마두반에 온, 사랑하며 협조하는 영혼인 너희들 모두에게

특별한 사랑과 기억을 보내주었다. 오늘 밥다다는 그들을 대신해서 사랑과 기억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 이해하느냐? 너희들 중 일부는 어느 한 명을 기억하고, 나머지들은 또 다른 이를 기억한다. 너희들이 생각으로 기억해온, 아버지와 더불어서 봉사의 도구였던 선발대의 노력이 자녀들 모두 너희가 그들을 기억한 데 대한 보답으로 너희 모두에게 사랑과 기억을 보내주었다. 푸시파 산타도 역시 사랑으로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바바가 그런 이름들을 얼마나 많이 언급할 수 있겠느냐? 서틀 리전에서 모든 이를 위한 특별 파티가 열렸다. 디디는 2종의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보내주었다. 너희들 중 많은 수가 오늘 특히 디디를 기억하지 않았느냐? 2종의 외국인인 너희들은 모두 단지 디디만 보았기 때문이다. 자가담바나 바우(비슈와 키쇼르)는 너희가 못 보았다. 이런 이유로 너희들 모두 디디를 특별히 기억했다.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낭비적인 일체의 생각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로웠고 애착에서도 자유로웠다. 그녀 역시 너희를 기억하지만, 그것은 너희를 끌어당기는 기억은 아니다. 그녀는 해방된 영혼이다. 그들의 집회도 역시 강력해지고 있다. 그들 모두 아주 유명하다. 앗차.

외국인 형제자매 몇몇이 봉사하려고 가면서 밥다다에게 작별인사를 드림.

밥다다가 너희 자녀들 모두에게 이르는데, 너희는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봉사하고 다시 돌아와 아버지 앞에 꽃다발을 가져오려고 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너희는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려고 가고 있다. 그것이 너희의 집이 아니라 너희가 봉사하는 곳임을 항상 기억해라. 너희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불행한 영혼들에게도 유익을 가져다주어라. 너희들은 봉사하지 않고는 평온하게 잠을 잘 수 없다. 너희는 봉사에 대한 꿈도 역시 꾸지 않느냐? 너희는 깨어나 눈뜨자마자 바바를 만나고 하루 내내 오직 아버지와 봉사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보라, 봉사할 줄 아는 자녀가 단 한 명뿐이 아니고 자녀인 너희들 모두가 다 봉사할 줄 안다는 것이 밥다다는 참으로 자랑스럽다. 자녀들 각자가 세계 시혜자다. 이제 우리는 누가 큰 꽃다발을 가져올지 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는 것이냐? 아니면 다시 돌아오려고 가는 것이냐? 그러니 누구의 사랑이 더 크냐, 아버지의 사랑이냐, 너희들의 사랑이냐? 만일 자녀들의 사랑이 더 크다면 자녀들은 안전하다. 대 기부자들, 축복의 공여자들, 완성되어 완전한 영혼들이 갈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여러 영혼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그들을 치장시켜 아버지 앞에 데려와야 한다. 너희들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해서 숫자를 세 배로 늘려서 돌아올 것이다. 물리적으로 얼마나 멀리 가든, 영혼인 너희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다. 밥다다는 협조하는 자녀들과 언제나 동반한다. 협조적인 자녀들은 늘 협조를 받는다. 앗차.

2 종의 외국인들이 밥다다께 드린 질문과 그에 대한 밥다다의 대답.

질 문 : 브라민 영혼들 중 일부는 사악한 영혼들에게 영향 받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뭘 어찌해야 합니까?

대 답 : 이런 상황에서 센터의 분위기는 언제나 항시 무척 강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너희의 단계도 역시 강력해야 한다. 그러면 악령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마음을 붙든다. 마음의 힘이 약한 탓에 그 악령들이 영혼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처음부터 요그육트한 영혼들은 특별 요가 바티를 가져서 그 힘을 (영향 받은 영혼에게) 줄 필요가 있다. 요그육트한 영혼들의 그룹도 역시 특별한 이 과제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너희가 다른 프로그램들도 여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도 역시 행해야 하며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처음부터 힘을 받으면 그는 구제된다. 그 영혼이 앉아서 요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영혼이 요가를 하며 앉아있을 수 없어도 상관없지만, 너희는 지각에 믿음을 가지고 너희의 과제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그러면 차츰 그 영혼의 철부지 행동이 계속해서 점점 차분히 가라앉을 것이다.

그 사악한 영혼이 처음엔 너희를 공격하려고 시도하겠지만 너희는 이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뚜렷이 인식해야 한다. 겁내지 마라, 그러면 그 사악한 영혼의 영향이 서서히 없어질 것이다.

질문 : 다른 영혼들에게 영향 받은 영혼들이 지식을 들으려고 센터에 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 : 만일 지식을 들음으로써 그 영혼이 약간 달라지거나 단 1초라도 뭔가를 경험한다면, 그 경우엔 너희가 그 영혼에게 열의를 불어 넣어줘야 한다. 때로는 영혼들이 자기들의 장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오는데, 너희는 그 영혼이 변하려고 왔는지 아니면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무데나 발견하고 온 것인지를 식별해야 한다. 때로는 영혼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진 탓에 문이 열려있는 곳을 보면 그냥 아무데나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온전한 의식이 없다. 그런 영혼들이 많이 올 텐데 그래도 너희는 먼저 그들을 식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로 인해 시간이 허비될 것이다. 때로는 누군가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다른 영향을 받은 상태로 올 것인데,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은 너희의 의무다. 그렇긴 하되 너희는 혼자서 그런 영혼과 함께 있거나 돌보지는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영혼들은 쿠마리가 혼자 있는 것을 보면 한층 더 동요되기 때문이다. 그러한즉 만일 그런 영혼들에게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면 다른 이들이 두세 명 더 있을 때나 책임을 맡았거나 나이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오도록 시간을 알려줘라. 그러한 때 그런 영혼들을 불러서 함께 앉아라, 왜냐하면 현재 세상은 아주 추악하고 사람들은 아주 나쁜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주 맑은 지각이 필요하다. 지각이 맑으면 너희는 그들의 파동으로 그들이 무슨 의도를 갖고 왔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질문 : 오늘날 어떤 곳들은 흠치고 무서운 분위기이니 이런 것으로부터 저희들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대답 : 이를 위해서는 요가의 힘이 많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누군가 너희를 겁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온다면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요가의 힘을 줘라. 만일 그때 너희가 뭔가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손상을 끼칠 테니 그저 잠자코 침묵의 힘만 줘라. 그럴 때 무슨 말을 하면 불에 기름을 끼얹는 셈일 것이다. 마치 신경 쓰지 않는 듯이 그저 무심하게 태연히 있어라. 그저 초연한 관찰자가 되어 말썽을 부리는 사람에게 침묵의 힘을 줘라, 그러면 그가 손을 쓰지 (폭력 행사) 않을 것이다. 그는 너희가 무덤덤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너희를 겁주려고 시도할 것이다. 너희가 겁먹거나 떨면 그는 더 큰 격변을 일으킬 것이다. 두려움은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한 때에는 초연한 관찰자의 단계를 써라. 그럴 때 너희는 이제까지 훈련해온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질문 : 밥다다께 받는 축복을 저희가 잘못 사용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입니까?

대답 : 더러 밥다다가 어떤 자녀들을 봉사할 줄 안다거나 각별히 사랑받는 자녀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특별한 칭호를 붙여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자녀들은 그 호칭을 잘못 사용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미 그래.” 제 스스로를 그렇다고 여김으로써 그들은 노력하기를 멈춘다.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 즉 뭔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 하는데, 왜냐하면 밥다다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었을 때의 바로 그 방식으로 축복을 자아와 봉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주의해지는 것은 그것을 잘못 쓰는 것이다.

질 문 : 성경에 보면 최후의 순간에 안티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의 형태가 있을 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대 답 : 안티 그리스도란 그 종교의 영향력을 감소시킨다는 뜻이다.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의 가치가 줄어들었다고 여겨진다. 그 종교에 속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그다지 강력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남들에게서 더 큰 힘을 경험한다. 그들이 안티 그리스도인 자들이다. 오늘날에는 독신생활에 별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사제들이 많고, 그래서 그들은 사제들이 가정을 가지도록 고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치 그 종교에 속하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가 된 셈이다. 앗차.

Blessing: 행운의 공여자 마스터가 되고, 아버지의 오른손이 됨으로써 변함없이 모든 과제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라.

아버지의 오른손이 되는 자녀들은 또 한결같이 협조적이고 모든 과제에 대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순종적이고 “네, 바바,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 한다. 아버지는 그런 자녀들, 변함없이 그에게서 특별히 사랑받는 그의 자녀들을 “그의 가치 있고 순종적인 자녀들”이라고 부른다. 그의 자녀들은 세계의 장식이며 그는 그들에게 축복의 공여자 마스터이며 행운의 공여자라는 축복을 준다. 집에서 살면서 그런 자녀들은 가정을 가진 자의 태도를 초월해 머물며 모든 이를 대하는 상호작용을 알로키하게 유지하는 데 늘 주의를 기울인다.

Slogan: 너희의 모든 말과 행위에서 정직성과 깨끗함이 있게 해라, 그러면 너희는 신에게 사랑받는 보석이 될 것이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